기획 / 발달장애, 그 보통의 삶 (5)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 사치인가요?

'동료지원가'. 발달장애인인 노세종(37)씨와 한민지(30)씨가 건넨 명함에는 이런 직무가 적혀 있었다. 세종씨는 지난 2019년부터, 민지씨는 올해 3월부터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동료지원가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데, 제주에선 제주도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세종씨와 민지씨의 사무 공간도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장애인부모회에 마련돼 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노세종(37·오른쪽)씨와 한민지(30)씨가 제주도장애인부모회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도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89% '복지일자리'
도내 장애인표준사업장 절반이 '세탁업'에 쏠림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늘리고 다양한 욕구 반영을"

발달장애인 잇는 '동료지원가' … "함께 모여 소통"

이들의 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낮 12시까지 하루 3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일하고 있다. 현재 일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하거나 자조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크다. 발달장애인이 함께 모이고 만나 소통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장애인부모회 강경균 사무처장은 "일하며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며 "이들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동료지원가와 같은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장애에 더 좁은 취업문… 발달장애인 고용률 '28%'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도 '장애'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체장애처럼 몸이 불편한 것보다 지적·자폐성 등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취업 문턱이 더 높다. 고용노동부의 '2021 장애인 통계'를 보면 전국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고용률은 34.6%였지만,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28%였다. 지체장애인(42.8%), 시각장애인(39.7%), 시각 외 감각장애인(청각·언어장애, 32.2%)의 고용률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일하는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은 1134명인데, 이 중 발달장애인은 7.14%(지적 80명, 자폐성 1명)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은 취업 시장 '배제' …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늘려야"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리중심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제주도의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89.2%(1011명)가 환경 정비, 주차구역 단속 등을 맡는 '복지일자리'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례가 제주에 시사하는 점은 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부터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로 3988명을 채용 목표하고 있는데, 이 중 350명을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실제 채용 인원은 346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170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 세 가지 직무에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 일하고 있다. 적은 일자리 수 등의 한계도 있지만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까지 껴안는 시도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장애인 일자리 특정 업종 '쏠림' … "다양한 욕구 반영을"

공공 일자리를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것은 과제다. 장애인을 다수 채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 중 30% 이상)만 봐도 특정 업종에 쏠림이 심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4곳인데, 이 중 절반인 12곳이 '세탁업'이다. 나머지 8곳은 '제조포장업', 그 외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이동우씨의 엄마 김윤정(50)씨는 "동우 또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박스 접기나 단순직을 많이 한다"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속상한 마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 장애 작가들이 기업과 협력해 소속 작가로 활동하거나 그림을 그려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판매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이러한 일이 시작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기사 원문은 한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둔 제주 코로나19 감소세

최근 일주일 5250명 확진… 전주대비 3700여명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하루 동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689명이 발생한 데 이어 7일 오후 5시까지 5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67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5250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750명이다. 이는 전주 대비 3725명이 감소한 수치다.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4443명이며 이중 442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80대, 90대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21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치명률은 0.06%이다. 강다혜기자

횡단보도 보행자 3명 치고 도주 경찰 40대 음주운전자 긴급체포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고 도주했던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3㎞를 달아났다가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안전띠 매 달라" 버스기사 때린 50대 입건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쯤 5·16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산책하던 여성 흉기 위협 경찰 30대 체포… 제주 압송

서귀포경찰서는 산책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경남에서 지난 6일 긴급 체포해 제주로 압송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정쯤 중문관광단지에서 산책중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같은 날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